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박 경 애

백 지 은[†]

광운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2012년~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게재된 219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내용과 연구주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최근 연구 내용 및 주제 동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격특성/적응 연구가 38%로 가장 많았고 검사/도구개발 연구 13%, 진로/직업 연구 10% 순이었다. 연구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32%, 성인 초기 16%, 청소년 14%순이었다.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적응, 도구개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성인 초기의 경우 성격 특성 및 적응 외에도 진로/직업 연구, 이론 개발과 관련한 연구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성격특성 및 적응 연구 중 외상, 정서조절 기제, 애착이나 관계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해외학술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의 동기간 내 발표된 논문 315편에 대해 동일 분석틀을 기준으로 연구내용 및 주제를 분석, 비교한 결과 다문화/다양성 연구 집중 경향을 확인하였고, 국내 연구 대비 내담자/환자 대상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상담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 향후 상담심리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내용분석

* 본 연구는 2015년 광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백지은, 광운대학교 교육학과 상담교육 박사과정,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 02-940-5617, E-mail : jelizzy@naver.com

오늘날 상담에 대한 일상적 관심이 증대되고 상담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현상이나 사건, 관계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상담에 대한 학문적인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추석호(1991), 김계현(1994), 노안영(1994) 등의 연구를 필두로 상담 연구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담학 또는 상담심리학의 개념적 경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이처럼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을 다룬 연구들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현장의 실제에서 출발한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고 학문적 차별성을 공고히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상담에서 어떤 분야와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 장면의 실제와 접근 방식 등을 이해함으로써, 상담 연구가 다른 학문과 어떤 다른 학문적 정체성을 갖고 발전해 나아가는 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를 들어 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적용된 상담 이론(노안영, 1994), 연구자(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조남진,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최은영, 1996), 연구대상(김계원 등, 2011; 서지효, 2008; 이재경, 2001; 이종국, 2003; 조남진 등, 2010; 조성호, 2003; 차희수, 2006), 종속변인(조남진 등, 2010), 연구방법(김경성, 2003; 김계원 등, 2011; 조남진 등, 2010; 조성호, 2003; 차희수, 2006), 측정도구(서지효, 2008; 이재경, 2001; 이종국, 2003; 조성호, 2003; 차희수, 2006), 통계분석방법(김경성, 2003; 김계원 등, 2011; 서지효, 2008; 조남진 등, 2010; 조성호, 2003), 참고문헌(조성호, 2003) 및 연도별 연구 내용 및 주제(김계원 등, 2011; 변창진, 1995; 서지효, 2008; 이재경, 2001; 이종국, 2003; 조남진 등, 2010; 조성호,

2003; 차희수, 2006; 최은영, 1996)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김계현(1994)의 연구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을 다룬 연구들은 연구 내용 및 주제와 그 연도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김계원 등, 2011; 변창진, 1995; 서지효, 2008; 이재경, 2001; 이종국, 2003; 조남진 등, 2010; 조성호, 2003; 차희수, 2006; 최은영, 1996), 상담심리학의 양적, 질적 성장을 설명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해보면, 상담심리학이 지난 1988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1권이 발행된 이후 30년이 지나오는 동안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 발전시켜왔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상담연구가 특정 주제 및 대상에 치우쳐 다양성이나 연구의 적용의 실용성이 두드러지지 못한 것 또한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1988~2003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조성호(2003)는 기존 상담학 연구 주제가 특정 분야의 상담성과 부분에 치우친 점을 지적하였고, 동일 학회지에 대해 2000~2009년 게재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김계원 등(2011) 또한, 연구자와 연구대상, 연구 주제의 편중 현상을 기술하며, 대학 중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적응 연구 또는 상담성과 연구 중심의 논문 게재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함께 한국 상담연구의 또다른 축을 구성해 온 「상담학연구」에 대해, 2000~2009년 게재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류한 조남정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이는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편중 현상은 학제적 관심이 상담 현장의 실제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포괄하지 못하거나 현장의 요구를 담지 못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연구의 성과가 상담 실제에서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나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는 응용학문으로서 학문적 지향점으로, 과학자-실무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을 표방해 온 만큼, 실천학문으로서의 상담과 심리치료 연구는 이론과 연구, 상담 실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 그 본질이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은 상담학계의 발전을 위해 자기반성과 극복이 필요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연구요소별로 학회 게재논문을 분류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뿐 아니라 접근이나 연구 수행, 분석을 아울러 연구 동향 전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과 달리, 연구의 내용과 주제에 집중하여 현재 한국 상담 연구의 학제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 지를 이해하고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응용학문으로써 그에 합당한 목적성을 띠고 연구들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제한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해 보다 소상히 들여다 볼 것이다. 또한 한국 상담 연구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어떤 차별성을 두고 확장되어 가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동일 기간 동안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이하 JCP) 수록 논문들의 주제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33.9 명의 허가받은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어 상담현장으로서 사례의 양과 다양성에 있어서 활성화된 시장이다(APA, 2014). 이러한 배경에 더불어 JCP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하 APA) 산하 상담심리학회에서 1954년 창

간 이후 연 6회에 걸쳐 발간되며, 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틀어 연간 평균 인용횟수를 토대로 영향력 지수를 산출하는 Journal Citation Reports에 따르면 응용심리학 분야의 학회지 중 9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중요성을 입증 받고 있다. 특히 치료적 개입과 평가, 진로 개발, 임상 수퍼비전, 다문화 역량, 방법론적 접근 등 상담심리학의 영역으로 정의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연구물을 발간해 온 오랜 의미 있는 전통을 갖고 있는 학회지로, 상담 심리학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어(Buboltz, Deemer & Hoffmann, 2010), 상담심리학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학문적인 관심과 목표, 가치를 얼마나 부합하는지,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 지를 점검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JCP는 다수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국 상담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JCP 게재논문의 연구내용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내용과의 비교는 국내 상담 연구가 어떤 차별적, 독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논문의 연구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과거 동일한 분석틀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 내용과 주제의 경향성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 연구주제의 동향을 확인한다.

셋째, JCP에 게재된 연구 내용과 주제에 대

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 동향과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상담 연구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상담 연구의 독자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발간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24권 1호부터 28권 4호까지 게재 논문 총 219편을 분석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는 국내에서 역사와 권위의 측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므로, 상담 연구의 목적, 관심사, 이론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나 그 방향성을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기존 한국 상담 연구와 같이 변화의 방향이나 다양성의 측면을 찾기보다, 현재 한국 상담 연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지 그 현 주소를 찾는 데 있으므로 5년간의 누적된 연구를 분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5년간 발행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의 총 권수는 20권이며, 학회지 1권당 평균 게재논문수는 11편이다.

평정자

본 연구의 평정자는 상담교육학 전공 박사

과정생 1명,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이면서 리서치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2명이 참가하였고, 리서치 회사 연구원 1인이 보조 참여하였다. 주 평정자 3인 모두 다수의 연구 동향 논문 및 보고서의 작성 또는 지도 경험이 있으며, 4명이 평정한 결과를 상담교육 전공 교수 1명이 감수하였다.

평정 절차

학회지 게재 논문 평정은 평정기준안 수정 및 보완, 평정자 훈련, 평정실시, 교차 검토 및 평정 확정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평정 기준안은 Buboltz, Miller 및 Williams(1999)의 평정지침안과 함께, 선행 연구동향 논문들이 사용한 분석 준거에서 각 항목들을 정리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항목들을 추출, 연구자들 간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평정 기준안에는 평가의 대상 및 분류유목, 주요 기준,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평가 대상이 되는 논문에 대해, 기초사항(출판연도, 권 호, 제목, 키워드), 연구주제(주요 연구 변인, 주제어, 연구 주제 분류유목), 연구 대상(연구 대상 분류 유목 및 인원수, 그 외 주요특성), 연구방법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연구 주제 및 내용으로 한정하였지만,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정리하여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변인이나 대상, 방법 등 미리 정의된 분류기준에 의거, 추가적인 질적 판단이나 추론이 불필요한 항목의 경우 논문의 기초사항을 정리한 리서치회사 연구원이 상담교육 박사과정생의 지도 아래 일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인 연구 내

용 유형 분류 및 이와 연관된 연구 변인, 주제어와 같이, 사전에 협의된 평정 기준 이외에도 질적 판단이나 합의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교육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주 평정자 3인이 분석을 주도하였다. 연구자는 평정기준안을 평정자들에게 설명, 예제를 갖고 연습을 진행한 후, 동일한 논문에 대해 평정 후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평정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논문에 대해 평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2명의 평정자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 논문 219편과 JCP 315편의 논문을 모두 평정하였고, 이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논문으로 표시된 학회지 논문 78편과 JCP 논문 150 편에 대해 3명의 평정자의 합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평정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차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평정자에 의해 교차검토 하였다. 1차 교차검토에서 연구주제가 2개 이상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것으로 상호 평가된 경우, 3인의 평정자간 토의를 거쳐 논문의 제목이나 연구의 배경 및 목적으로 강조된 부분을 고려하여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으로 평정자간 일치를 피하여 단일 코딩하였다. 한편, Buboltz 등(1999)의 연구 분류 중 ⑩~⑬의 경우, 연구의 접근방식을 기준으로 한 유목이고, ⑥ 다문화/다양성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분류한 유목으로, 본 연구의 목표인 연구의 주제 및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5개의 분류유목에 대해서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추가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평정 도구 및 분류기준

본 연구의 초점인 연구 주제 및 연구대상에 한해, 분류기준표를 작성하여 범주화하였다.

연구대상 분류기준

연구대상은 김계원 등(2011)이 사용한 기준과 Buboltz 등(1999)의 기준을 바탕으로, 발달 단계, 내담자 특성, 소속 등을 고려하여 13가지 분류 기준을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이 2개 이상을 포괄하는 경우 Buboltz 등(1999)이 제안한 방식과 같이, 각 연구에 대해 0.5를 할당하여 총 논문편수의 누계를 맞추었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동: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 ② 청소년: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14세에서 19세 이하 청소년
- ③ 대학생(대학원생):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④ 성인: 그 외 20~40세 미만 성년기에 속하는 일반인
- ⑤ 중/노년: 40~60세 중년층 및 이후 노년기에 속하는 일반인
- ⑥ 부부/연인: 결혼 관계 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녀 2인
- ⑦ 다문화: 연구주제 분류기준 중 ⑥번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의 대상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다른 분류 기준에 속하더라도 연구주제가 다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경우 이에 분류한다. 소수 민족 및 인종(Racial and Ethnic Minority: REM),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하위문화 집단 또한 이에 포함시켰다.
- ⑧ 성소수자: ⑦과 마찬가지로, 연구주제 분류기준 중 ⑥번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의 대상

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성소수자(LGBTQ)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및 그 외 성소수자인 퀴어(Queer)를 포함한다.

⑨ 장애인(환자/내담자 포함):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경우를 이 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환자’, ‘내담자’로 지칭하는 경우 해당 항목으로 코딩하였다. 치료적 개입 연구에 있어서 임상적 진단 경험이 있거나 당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다룬 경우에만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⑩ 상담자: 상담자 교육을 받는 대학원생 상담 수련생, 상담 전문가, 그 외 상담과 관련된 업무 수행자

⑪ 군인

⑫ 교사: 상담자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주제와 연결된 직업을 기준으로 추가 분류함.

⑬ 기타

연구주제 분류기준

연구 주제의 분류기준은 귀납적 과정과 연역적 과정을 함께 적용하여 확정하였다. 기존 연구동향 논문에서 활용되어 온 Buboltz 등(1999)의 분류유목을 활용한 평정기준을 가지고 1차 분류 후, 1차 분류된 연구 유목 중 특정 영역에 대해, 연구의 주요 변인과 대상 등을 기준으로 군집화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분류 유목을 다시 세분화하였다. Buboltz 등(1999)이 1973~1998년까지 JCP에 게재된 2,026편의 연구논문 검토 및 기존 분석틀을 참조하여 확립한 14개 연구 내용 분류 유목은 이동혁과 유성경(2000), 조성호(2003), 조남정 등(2010),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반복하여 사용된 바 있다. Buboltz 등(2010)은 이후 11년 동안 JCP에 발표된 484편의 연구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 애착 관련 연구 주제’ 분류 유목을 추가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나 애착 문제를 다룬 연구의 경우 이 유목에 코딩하였다. Buboltz 등(2010)은 해당 유목이 과거 ‘기타’ 연구 유목으로 분류되던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분류한 것이라 보았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그에 관련한 연구들이 ⑦ 성격 및 적용 연구에 접치는 연구 범주로 보고, 변별적인 분류 코드를 따로 부여하지 않은 대신, 귀납적 방식으로 ⑦번 항목으로 분류된 연구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소분류 범주를 정의하는 과정에 이를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타 분류 유목을 사용하지 않고 ①~⑬번 분류 유목 내에 포괄시켰다. 본 연구는 국내 상담연구 동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Buboltz 등(1999)이 처음 제안한 분류 유목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본 분석틀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보다 높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Buboltz 등, 2010).

① 상담성과연구: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의 직접적 효과 보고 연구

② 상담과정연구: 상담 결과에 대한 보고 없이 상담과정 분석에 집중한 연구. 치료 효과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상담자 특성이나 지향점이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강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치료동맹과 같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표적이다.

③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상담 과정의 차이에 따른 상담 효과를 다룬 연구. 치료적 관계가 치료 후 증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다

른 연구 또한 이에 해당한다.

④ 상담자 특성/훈련 및 수퍼비전 연구: 수업이나 상담 현장, 개인 또는 집단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사의 훈련이나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 ④번 연구 유목은 조성호(2003), 조남정 등(2010)의 연구에도 채택되었으나,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및 제갈원(2012),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는 배제된 바 있다.

⑤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 및 일반인들의 지각/태도 연구: 전문적 도움추구와 같이 상담의 개입 요청, 상담과정에 대한 몰입과 관련한 내담자 태도 및 신념을 다루는 연구는 이 분류 유목에 해당한다.

⑥ 다문화/다양성 연구: Buboltz 등(1999)은 본 분류유목에 대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사회적 취약 계층(disadvantaged), 동성애자(gay, lesbian), 특정 장애/질병을 가진 개인(physically challenged or disabled individuals or living with HIV/AIDS)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탐색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2010년 연구에서는 ‘다문화 또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다양한 집단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Buboltz 등(1999)은 다른 분류유목에 속할 수 있는 연구라도 다문화/다양성에 대한 지향성을 토대로 그들의 경험이나 특징, 증상을 설명하는 연구는 여기에 포함시켜, 상담심리학에서 다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Buboltz 등(1999)의 분석틀을 차용한 조성호(2003), 김계원 등(2011)은 적용 가능한 사례의 부족을 이유로, 해당 유목을 분석틀에서 제외시켰으나, “상담학 연구”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조남정 등(2010)의 연구를 통해 2008년 이후 다양성 연구에 대한 게재율이 높아졌다는 데 주목하여, 본 연구에

서는 그대로 포함시켰다. 또한 Buboltz 등의 2010년 연구 유목을 차용한 김봉환 등(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다양성에 대한 분류 범주에 더해, 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이혼가족, 동성애자, 장애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괄하는 소수집단(minority) 연구범주를 따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Buboltz 등의 1999년 원 논문에서의 정의를 차용하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대신, 소수 민족 및 인종(Racial and Ethnic Minority: REM), 동성애자(gay, lesbian) 대신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로 확장하고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하위문화 집단을 추가하였다. ⑦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 성격과 적응 수준, 발달 수준 간 관계를 다룬 연구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성장과 관련한 연구, 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상을 다룬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조성호(2003)의 연구에서는 내담자, 정신과 환자, 비행청소년이나 신체장애자 및 일반인들의 성격 및 심리특성, 성장 및 발달, 스트레스, 적응 등에 관한 연구를 통칭하여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에 대해, 기질적 특성 외에도 신념체계, 정서적 조절기제 등의 반응경향성을 설명하는 기제로 확장하여 본 유목에 포함시켰다.

⑧ 학업적 성취 연구: 대학생 포함,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예측변인이나 집단간 차이 등을 다룬 연구들이 해당한다.

⑨ 진로/직업행동 연구: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진로 발달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괄하여, 진로와 적성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이에 해당하지만, 진로 상담과 관련한 연구는 ①~③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최근 눈에 띄는 직장 내 갈등, 일과 여가의 균형, 직업 적응 연구 또한 포함시켰다. 대학생의 성적과 같이

⑧번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 변인을 다루 었더라도 연구 목적이 졸업 후 진로에 있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한다. 군병사의 경우, 한 국의 징병제 특성 상, 선택에 의한 직업, 직무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 군인을 제외한 일반 군병사의 군대 내 적응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⑨번으로 코딩하지 않았다.

⑩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심리 측정 및 측 정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로, 개발된 도구의 타당화 과정 연구까지 포함한다. Buboltz 등 (1999, 2010)이 정의한 것과 같이, 성격 등 심 리적 속성이나 진로, 학업 등의 주제를 다루 더라도 척도 개발이나 타당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⑩번 항목으로 코딩하였다.

⑪ 연구방법 및 통계 연구: 새로운 연구 방 법이나 통계적 절차를 적용, 소개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이 경우, 연구 설계나 방법, 분석 방법 등을 연구의 목표 또는 차별성으로 강조 하거나 제목 등에 포함시키는 경우까지 포함 하여 코딩하였다.

⑫ 개관연구: 특정 주제에 대한 축적된 기 존 연구들을 집약, 분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로, 메타분석 방식으로 작성된 연구

는 이에 해당한다. 연구내용이나 주제가 다른 항목으로 분류 가능하더라도 연구들을 집약하 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경우 ⑫번 항목 으로 코딩 하였다.

⑬ 이론개발연구: 기술적, 탐색적 연구를 통 해 특정 이론을 새롭게 제안한 연구를 말한다. 특정 영역에서 축적된 연구의 요약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개념적 연구 틀을 기초로 여러 연구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제 안하거나 지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 목적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연 구자가 명시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코딩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심 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연도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연도별 연구 영역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 연구 결과의 서술은 5년간의 누적된 연구 건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도별 연구 내용 및 주제

연도	연구주제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	
2012	4	1	2	3	1	3	10		4	8		2	2	40	18	
2013	3	1	2	1			15	2	2	3	4	5	3	41	19	
2014	3		1	5			19	1	11	3	1		4	48	22	
2015	1	1		2	1		16		3	7	4	3	4	42	19	
2016	1	3	1			2	23		1	7	4	2	4	48	22	
합계	#	12	6	6	11	2	5	83	3	21	28	13	12	17	219	100
	%	5	3	3	5	1	2	38	1	10	13	6	5	8	100	

최근 5년간 연구 내용 및 주제의 특성

최근 5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은 총 219편으로, 앞서 정의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성격특성 및 적용 연구가 38%로 가장 많았고, 검사 및 도구개발 연구가 13%, 진로/직업 연구가 10%, 이론 개발 연구가 8%, 연구방법 6%, 개관, 상담 성과 분석 연구가 각각 5%의 비중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학업 성취, 상담에 대한 내담자 및 일반인들의 인식·태도, 다문화/다양성 연구, 상담과정 연구의 비중은 3% 이하의 낮은 연구 편수를 보여, 해당 범주의 연구가 꾸준히 게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법론적 측면에서 분류한 ⑩~⑬번 항목에 해당하는 논문 중 4편을 포함하여, 총 6편의 논문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나 상담몰입도,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상담에 대한 내담자 및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다문화/다양성 연구의 경우, 기존 상담 연구 동향 분석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을 만큼 게재율이 낮은 유목으로, 최근 5년간 5편만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탈북자의 한국 사회 적응이나 탈북 경험 또는 다문화 가정의 갈등을 다루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은 연구 주제 및 내용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분석틀 중 절반 이상의 분류 유목이 특정 연구대상에 한정된 연구 주제를 분류 유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대학생과 성인 초/중기, 청소년, 상담자의 순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초/중기를 포함하여 전체 성인 대상 연구 비중이 20% 수준으로, 동일한 연구 대상 분류체계를 사용한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 성인 대상 연구가 7.4%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동향 분석에서 학생 중심의 연구 편향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에서 다소나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는 가장 많이 연구된 대학생, 성인 초기, 청소년,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정하여, 주제별 비중을 살펴보았다. 가장 다양한 주제로 연구된 대상은 성인 초/중기와 청소년기로, 특히 상담장면이나 개입과 관련한 연구 주제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청소년기는 대학생과 함께 주로 도구개발이나 연구방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었다. 그에 비해 아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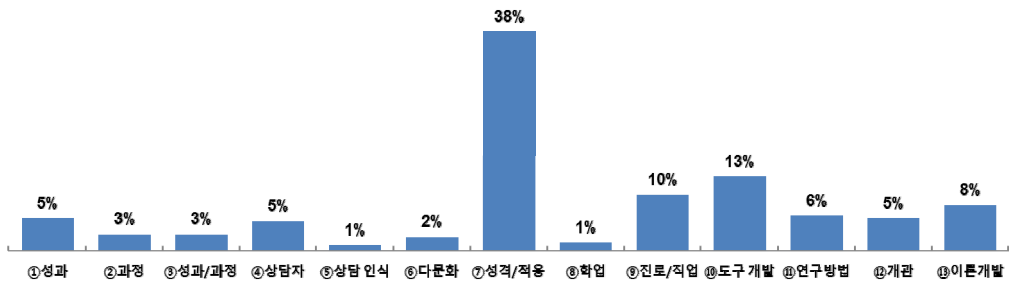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 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 내용 및 주제

표 2. 최근 5년간 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

연구 대상	연구주제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
①	1						5			2		1		9	4
②	3		1				14	2	1	6	1	1	1	30	14
③	1		2				40	1	10	10	3		3	70	32
④	4		1		1	1	9.5		7	4	1	1	6	35.5	16
⑤	1		1				6.5						0.5	9	4
⑥			1				3			1	3		1	9	4
⑦						4								4	2
⑧	1	2		1	1		1			1			2	9	4
⑨		4		10						2	5	1	4	26	12
⑩							2		1	1				4	2
⑫	1						2		2					5	2
⑬										1		8		9	4
합계	12	6	6	11	2	5	83	3	21	28	13	12	17	2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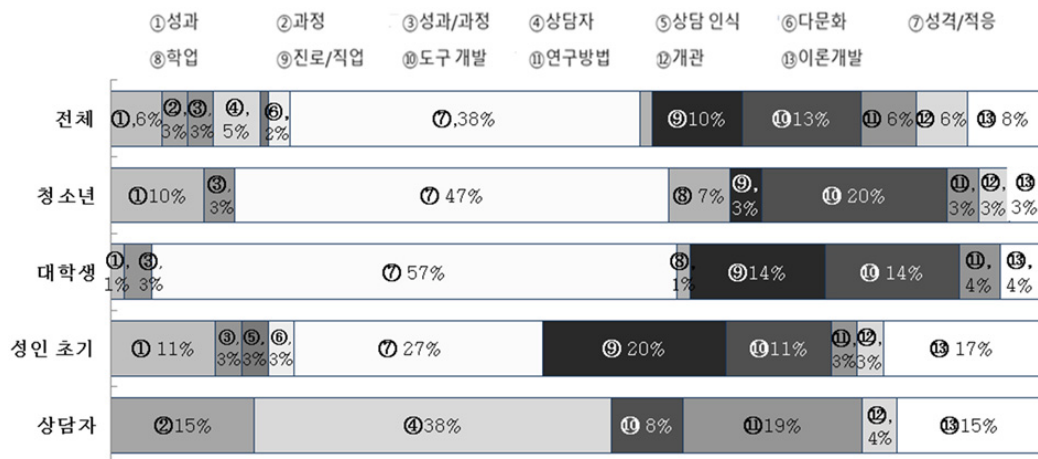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 학회지 게재논문의 주요 연구대상 별 연구 주제 및 내용 분포

직접 연구한 논문은 9편으로 제한적이었으나, 그 외 5편의 논문에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과의 관계를 주제를 연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중/노년층이나 부부/가족과 같이 다른 발달단계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담 개입 관련 주제에서, 내담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한 반면, 상담자 또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구의 주제나 대상에서 모두 치료적 접근을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여전히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기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 동향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기존 상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 중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틀을 활용한 조성호(2003), 김계원 등(2011)의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최근 5년간의 연구 주제 및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조성호(2003)의 연구는 1988년부터 2003년 발간된 총 238편의 논문에 대해, Buboltz 등의 14개 분류항목 중 ⑥ 다문화/다양성 연구, ⑧ 학업적 성취 연구, ⑭ 기타 연구 유목을 배제하는 대신 사례연구 유목을 추가하여 12개 분류유목을 사용하였고, 김계원 등(2011)은 2000년부터 2009년 발간된 484편의 논문에 대해 ⑥ 다문화/다양

성 연구, ⑪ 연구방법 및 통계 연구, ⑭ 기타 유목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포함한 3가지 연구의 공통된 분류 유목인 ① 상담성과 ② 상담과정 ③ 상담과정 및 성과 ④ 상담자 특성/훈련 및 수퍼비전 ⑤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 및 일반인들의 자각·태도 ⑦ 성격특성 및 적응 ⑨ 진로/직업행동 ⑩ 검사 및 도구개발 ⑫ 개관 ⑬ 이론 개발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연구 219편 중 213편(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재분류함, 조성호(2003)의 연구 중 230편, 김계원 등(2011)의 연구 중 477편을 비교하였다. 평정자 및 평정의 기준이 각 연구 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비교를 통해 1988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 주제의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먼저, 성격특성 및 적응에 대한 주제는 기존의 두 연구에서 모두 지적하였듯이 지속적으로 국내 상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업행동이나, 검사 및 도구개발, 이론 개발 등의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①~⑤번 범주와 같이,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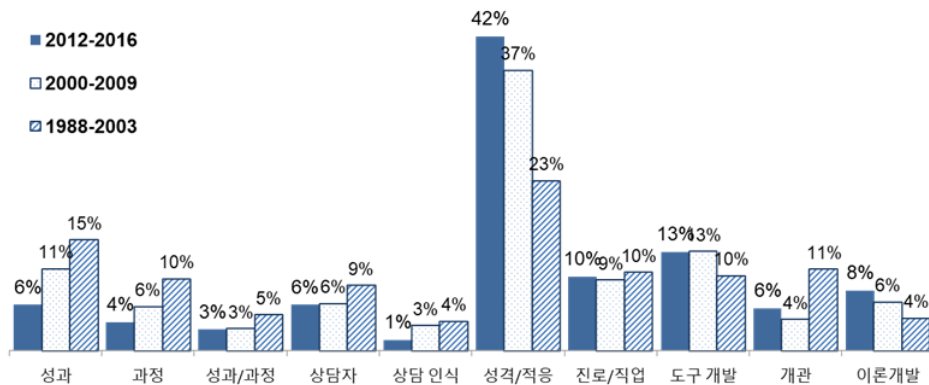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 논문 동향 연구간 연구주제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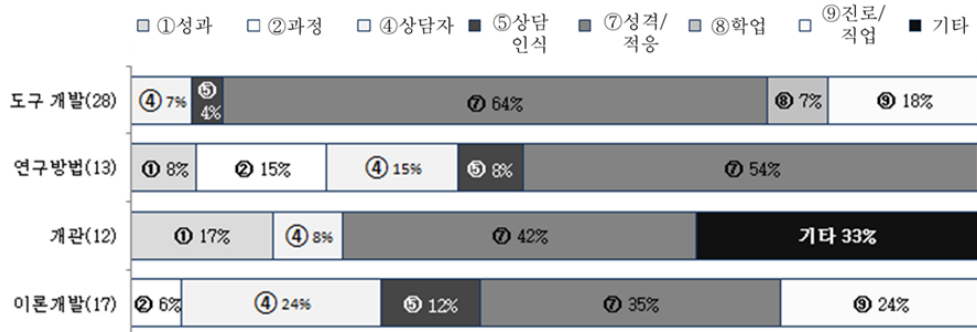


그림 4. ⑩~⑬ 번 주제 연구에 대한 재분류
 주. 괄호 안은 발표 논문수를 제시함

적 개입 관련 주제는 그 비중이 줄거나 정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⑩ 검사 및 도구 개발연구, ⑪ 연구방법 및 통계 연구, ⑫ 개관 연구 및 ⑬ 이론개발 연구들은 연구의 접근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다른 범주와 같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의 성과나 과정, 상담자 경험이나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어, 상담현장에서 활용되는 개입의 이론적, 체계적 토대를 마련하는 근간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연구주제에 대한 세부 분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석틀에 의한 분류에 더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오는 주제인 성격 및 적용 연구와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연구 주제인 ⑨ 진로/직업행동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귀납적 방식의 추가적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현재 한국 상담심리학 연구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있어, 기존 연구 틀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격 및 적용 연구의 경우, 가장 많은 논문이 이 항목에 해

당하는 만큼 다양한 소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탐색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연구내용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실린 219편의 연구 중 83편이 이에 해당하였고, 척도개발이나 연구 방법 등을 다룬 연구 중 36편이 성격 및 적용을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19편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국내 상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다는 반증인 동시에, 성격 및 적용이라는 분류 유목 자체가 변별적인 소주제들을 포함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119편의 연구에 대해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하위 범주들을 분류하였다.

그에 앞서 성격 및 적용을 다룬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대학생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청소년, 성인 초기의 순으로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성격 및 적용 연구가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학교 중심의 연구 장면에서 집중되는 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성인 발달과

표 3. 성격 및 적응 연구의 연구대상 별 비중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초/중기	성인 중/후기	부부/ 연인	환자	군인	교사	기타
6%	16%	43%	13%	5%	6%	3%	3%	2%	3%

표 4. 성격 및 적응 연구의 연구대상 별 비중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연구 편수			
적응	발달단계, 또는 특정 감동상황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극복 과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	상황적 특성	외상	20	17%	
			차별적/문제시되는 적응 문제/경험을 유발하는 특정 상황에 초점	애착/관계 갈등	16	13%
			가족갈등	8	7%	
			장애	5	4%	
			발달단계(노화, 출산, 결혼)	3	3%	
		소계		52	44%	
		결과적 특성	적응 과정상 어려움으로 발현되는 증상, 부적응적 정서, 인지, 행동	중독	8	7%
			자살/자해	9	8%	
		소계		17	14%	
		소계		69	58%	
특질	적응 과정에서 반응특성을 결정짓는 개인적 특질이나 그에 수반되는 증상	정서조절능력	증상: 우울/분노등 정서표현	9	8%	
			증상: 관계갈등	6	5%	
			기타	3	3%	
		소계		18	15%	
		역기능적 사고	완벽주의, 내면화된 수치심, 침투적 사고 등	불안	4	3%
				이상섭식행동	2	2%
		기타		5	4%	
		소계		11	9%	
		성격	수치심 경향성, 내현적 자기에, 자아 탄력성 등	성격 구성요소 이해	6	5%
				증상/반응 양식	6	5%
다른 특질 간 관계	5			4%		
소계		17	14%			
자기개념	자아해석 양식, 자기복잡성 등		4	3%		
소계		4	3%			
소계		50	42%			

가족의 해체, 취업이나 실직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성인 초기부터 후기까지로 연구대상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표 4와 같이 크게 발달적 단계나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극복 과정, 그에 수반되는 증상 등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적응에 대한 연구와, 그 상황에서의 반응특성을 결정짓는 개인의 성격적, 기질적 특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총 69편으로, 전체 성격 및 적응 연구 중 58%를 차지한다. 이를 세부적인 연구 문제로 구분해보면, 적응을 요하는 문제상황에 대한 연구는 총 52편(44%)으로, 외상경험(20편), 애착문제(16편), 가족 갈등 특히 어머니-자녀 간 갈등이나 양육 문제(8편), 개인 또는 자녀의 장애(5편), 그리고 결혼, 출산 등 삶의 주요사건(3편) 등이다. 적응에 대한 연구 중 또 다른 중분류 범주는 적응과정 상에서 겪는 역기능적인 결과 또는 증상에 대한 것으로, 자살이나 자해(9편), 중독(8편)이 해당된다.

한편, 성격 및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의 또 다른 축인 개인 특질에 대한 연구는 총 50편, 42%에 해당하며, 무엇을 개인 '특질'로 보았는지에 따라 정서 조절기제, 역기능적 사고, 성격, 자기개념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최근 정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결과적 변인으로 정서의 경험뿐 아니라, 과정적 측면에서 정서의 조절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정서조절기능을 개인 특질로 다룬 연구는 총 18편, 전체 성격 및 적응 연구 중 1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의 문제로 인한 우울, 분노 등의 역기능적 정서 경험에 대한 연구가 9편, 관계갈등에

대한 문제가 6편, 그리고 정서조절능력 자체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3편이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 완벽주의, 자기비난, 반추/침투적 사고 등 역기능적 사고를 반응경향성으로 보고, 그에 수반되는 불안이나 이상섭식행동 등의 정서/행동적 특징을 다루는 연구가 총 11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 내현적 자기에, 자아탄력성 등의 성격변인에 대해, 그 구성요소나 수반되는 증상/반응양식, 다른 개인 특질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총 17편이고,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 또한 4편으로 집계되었다. 결과적으로 성격 및 적응 연구 119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크게 외상, 정서조절 기제, 애착이나 관계 갈등 및 그와 관련한 경험들로 요약해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구 동향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지금까지 2012~2016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상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인 동일 기간 내 해외 학회지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동일 기간 내에 APA에서 발간하는 JCP에 출간된 총 3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동일 분석틀을 적용하여 비교했을 때,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Buboltz 등(1999, 2010)의 JCP 연구 동향 분석결과를 그대로 차용하여 비교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동일 평정자가 동일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동기간에 걸쳐 게재된 논문을 분석,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JCP에는 “한국심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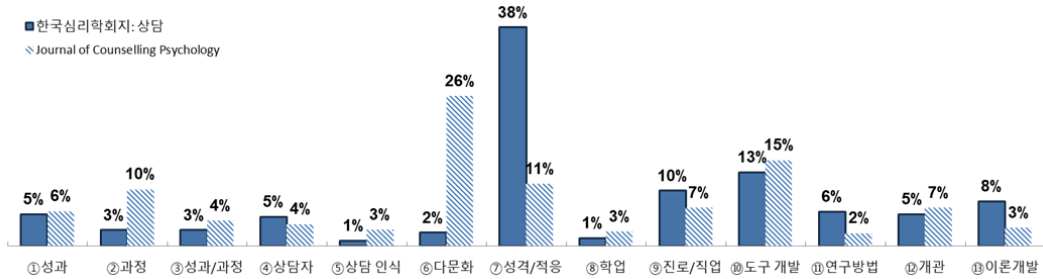


그림 5. 최근 5년간 연구 내용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s. JCP

지: 상담 및 심리치료” 대비 특정 연구 영역으로의 편중 현상이 덜하고 ①~⑤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상담 개입과 관련한 연구 비중의 소계가 27%로, 국내연구 비중(17%) 대비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절대적 분량 자체가 부족한 영역인 다문화/다양성 주제 영역에 대해, 26%의 높은 게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APA가 심리학의 학문과 현장에 있어 다문화적 역량과 관심을 심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 측면의 많은 연구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5년간 각 학회지 게재 논문에서 다른 연구대상은 그림 6과 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비해 JCP 게재 논문은 다문화, 성

소수자 등 ⑥ 다문화/다양성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자’,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도, JCP의 연구 수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연구 내용 중 ①~③에 해당하는 치료 사례에 입각한 연구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 논문 25편 중 24%(6편)만이 내담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JCP에서는 64편 중 51%(33편)가 해당되어, 실제 상담현장 사례에 입각한 치료적 접근의 검증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높은 현장 활용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에 비해 국내 연구의 경우, 대학생이나 청소년 등, 현장보다는 연구 장면에서 비교적 접근 용이성이 높은 비임상적 집단을 대상으로, 임상적 진단이 아닌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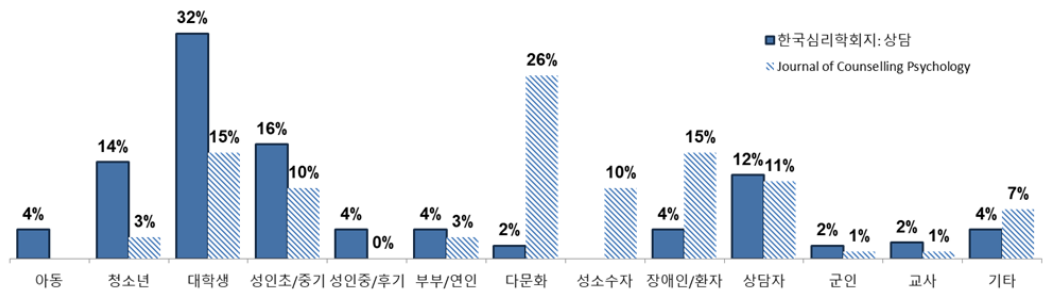


그림 6. 2012~2016년 연구 대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s. JCP

응특성이나 성격 등에 주목하여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을 잠정적으로 추론하거나, 상담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 비중이 JCP에 비해 두드러지는 영역인 ⑦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 및 ⑨ 진로/직업행동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에서 대학생, 성인 초기의 성격, 반응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 발달단계 및 삶의 요구도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는 환자/내담자보다는 일반 개인의 다양한 발달 스펙트럼을 반영한 연구대상에 대해 이들의 생활 전반에서 겪는 적응경험과 이들의 반응 특성 연구에 대해 JCP 대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⑩ 도구개발, ⑪ 연구방법, ⑬ 이론 개발 또는 ⑫ 개관 연구의 게재 비중이 두 학회지간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담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는 학문적 노력이 있어서 국내 상담연구 또한 JCP 못지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5년간 JCP에 게재된 ⑥ 다문화/다양성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이 민족/인종, 문화적 가치 측면, 또는 성적 지향성 측면에서 소수자(minority)로, 그들 내에 공유되는 성격적 특성이나 신념체계, 정서적 반응 양식을 탐색하거나 주류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겪는 갈등, 외상적 경험 등을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성격 및 적응 연구로도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⑥ 다문화/다양성 유목으로 분류된 연구의 70%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 기실 JCP에서 성격 및 적응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논문의 비중은 약 30% 수준에 다다르며, 국내 연구 비중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연구가 대학생 및 20대 성인초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두 학술지 모두 구체적 연구 변인이나 연구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의 주제면에서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논문 219편의 주제와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것과 함께 이를 상담심리학계의 대표적 해외학술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JCP) 논문 315편과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 상담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어떤 차별성을 띠는 지를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들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상담연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상담연구의 주제 및 내용에서 성격 및 적응을 다룬 연구 집중도는 기존 연구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은 한편, 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효과를 포함하여 치료요소의 기술이나 검증은 목표로 하는 연구, 학업 성취, 다문화 연구의 비중은 그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상담 영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기보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및 주요 상담관련 학술지를 포함하여 학술지의 종류가 확장되고 학술지 별 게재경향이 세분화, 전문화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이 상담 연구 동향에 있어 학문적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고 있는 경우, 연구의 참신성이나 패러다임의 전

환과 같이, 향후 연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당위를 우선시하다 보니(Buboltz 등, 2010), 자연히 특정 주제의 게재율의 편차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적 성취와 관련한 연구들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학회지를 비롯한 학습, 학교생활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연구지의 수가 늘어나고 자리를 잡음으로서 이에 집중되는 한편, 보다 보편적 대상에 대한 상담의 이론적 실재를 다루는 본 학회지에는 게재율이나 연구자들의 시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기존 Buboltz 등(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둘째, 치료요소 및 치료과정,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 수가 적은 것은 지속적인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발간회수와 회원 수를 고려해보았을 때, 한국 상담학회나 한국 심리학회 산하의 임상심리학회 등 다른 관련 학회를 앞서거나 비등한 수준임에도, 최근 5년간 37편, 연 평균 약 7건의 게재 논문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개입 과정을 포함하는 연구 수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으로, 동일 학회의 분과로서 비슷한 연구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Kore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연구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JCP 게재 논문 315편 중 44편이 상담 과정을 다루고 있고, 이 중 80% 이상이 치료동맹과 같이 상담자-내담자 관계라는 치료기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연구에서 이를 다루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향후, 치료기제(therapeutic mechanism), 특히 상담자-내담자 관계 안에서 각 상담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상담개입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에 불과하여, 기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자들이(김계원 등, 2011; 이동혁, 유성경, 2000; 조남정 등, 2010; 조성호, 2003)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장 사례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여전히 한국 상담심리학 연구 확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를 적용, 발전시킨 현장사례를 다시 연구의 성과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의 연속성의 제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내담자가 아닌 상담실 밖의 일반 청소년, 성인의 특성이나 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세부 주제를 살펴본 결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례로, 일반인의 상담에 대한 인식 연구 중 대표적인 주제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것으로, 상담 전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상담현장에서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학교나 상담 현장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들이 다각화, 심화됨에 따라 개인의 성격과 같은 특질 요인과 환경, 발달단계에 따른 적용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담적 개입을 수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족의 해체나 관계 갈등으로 인한 방임이나 학대, 다양한 관계 갈등이 빚어내는 각종 재난적 사건 등이 최근 증가하는 것과 함께, 성격 및 적응 연구주제 중, 외상(17%), 부모 양육이나 가족 갈등, 애착 등 관계적 측면을 다룬 연구(2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높은 비중의 성격 및 적응 연구는 현장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도 해석이 가

능하다. 또한 상담의 영역은 임상 사례에 대한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적 접근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과 결과의 적용에 있어 현장의 범위는 더욱 확장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격 및 적응 연구에서 다룬 개인의 특징적 반응경향성이나 갈등상황에 대한 적응과정 등에 대한 탐색은 상담교육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구체화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볼 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의 경우 개입의 긴급성이나 집중도 측면보다는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대상을 향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치료, 예방, 교육, 발달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Hill & O'Brien, 2001)으로서의 상담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최근 5년간 게재 논문을 분석하였고, JCP 게재 논문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의 동향을 일반화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상담 연구학술지 중 하나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내용과 주제에 집중하여 양적인 비교만이 아닌 세부 주제의 분류를 시도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질적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상담 연구의 지향점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상담 연구의 차별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JCP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시도하는 데 있어, Buboltz 등(1999, 2010)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차용한 기존 연구(조성호, 2003)와는 달리, 동일 평정자가 동일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직접 분석,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상담학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지속 발전해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는 회원 수 증가와 함께 학회지 창간이 30년에 이르면서 학문적 성숙도가 무르익는 환경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 및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재 논문별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2012~2016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 논문 219편 중 43편(19.6%)이 저자의 박사논문, 66편(30.1%)이 석사논문을 요약, 발췌한 내용임을 감안한다면, 연구의 참신성이나 다양성, 체계성, 학문적 깊이의 측면에서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또는 기업체, 대학 등의 연구비 지원을 거친 연구는 23%에 그치고 있어, 연구의 기간과 범위, 또는 대상 등을 확장하는 데 있어 인적, 물리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상담학 연구의 중심이 현장의 상담전문가보다는 학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상담 실체에 대한 연구의 저성장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례의 양적, 질적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논문 게재에 대한 낮은 동기 수준으로 인해 가치 있는 연구 소재가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과 연구 장면의 딜레마로 인해, 상담과정과 같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문의 적용가능성이라는 실용적 가치가 높은 연구의 수는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상담학 연구의 다양성과

가치의 확대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장 연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석, 박사 졸업생과 같이 초심 전문가를 넘어서 상담, 연구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까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가치 뿐 아니라, 실 사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관심과 논문인용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학회 차원에서도 이들을 모두 참여시킬만한 계기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례로, 많은 해외 학회들이 도입하고 있는 보수교육프로그램 이수에 사례연구 등을 접목시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수급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구 장면에서도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광범위한 사례 및 현장 유관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풍토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회와 학교, 현장을 아우르는 연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대상도 함께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연구의 대상이 성인초기에 집중되어 그들의 성격 발달과 적응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서 급속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진로 고민, 세대 갈등, 늘어난 성인 후기 적응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상담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상담 연구가 상담적 개입 뿐 아니라 성격과 적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 교육을 통한 적응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들 성인 중, 후기에 대한 연구야말로 앞으로 상담심리학이 나아가야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JCP에서 다문화 또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높은 게재율은 우리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다문화로 인한 갈등과 적응의 혼란을 경험하여 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담적 개입이 강조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하위문화(sub culture)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급성장하면서 1세대 이주민 뿐 아니라 그들의 2세대, 3세대까지 적응의 어려움이 확산되어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 그들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연속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인 만큼 학교, 지역사회 내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경험하는 적응과 혼란에 대해 상담 교육적 관점의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차례 한국 상담심리학의 양적인 발전을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질적인 성장에 있어 그 다양성과 깊이에 있어 지속적으로 물음표가 남겨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상담연구 주제에 대한 동향 탐색과 이에 대한 JCP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거쳐, 그 연구적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와 더불어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와 상담실제 장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필요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에 있어 반성적 성찰

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경성 (2003). 상담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초등상담연구*, 2, 21-32.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계현 (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6(1), 142-165.
-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2년~2011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 노안영 (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동향. *학생생활 연구*, 26(1), 99-113.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변창진 (1995). 상담심리 연구동향 I: 연구주제. *학생지도연구* 28(1), 1-26.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서지호 (2008). 한국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경, 최 미, 최한나 (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 (1993~2016.7).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이동혁, 유성경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대상 분석: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1), 37-58.
- 이재경 (2001). 상담학의 연구동향. *학생생활연구*, 14(1), 123-140.
- 이종국 (2003). 초중등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경향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 연구」 학회지 게재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 832.
- 차희수 (2006). *국내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 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과 실태분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1996). 상담심리학의 연구경향 분석. *교육과학연구*, 1(1), 167-197.
- 추석호 (1991). 상담연구의 동향. *지도상담*, 15(1), 77-89.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PA (2014). How many psychologists are licensed in the United States?, *Monitor on Psychology*, 45(6), 13. Retrieved from <http://www.apa.org/monitor/2014/06/datapoint.aspx>
- Buboltz, W. Jr., Miller, M.,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3-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496-503.
- Buboltz, W. Jr., Deemer, E., & Hoffmann, R. (2010).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years la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3), 368-375.
- Hill, C. E., & O'Brien, K. M. (2001). *상담의 기술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9년에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17. 07.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9. 04
게 재 결 정 일 : 2017. 10. 17

Research Trends i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12~2016): A Comparison of Research

Kyungae Park

Jieun Baek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nduct a comparison of trends betwe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d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9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2 and 2016, indicated personality and adjustment as the most popular topics (38%), followed by instrument development (13%) and career/job aptitude (10%). Research object was analyzed to consider a potential higher relationship with research themes, resulting in university students taking the largest portion (32%), young adults (16%) and adolescents (14%). While personality and adjustment and development of instruments targeted students, career development studies were aimed towards young adults.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and determined that trauma,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d relation conflict were investigated most frequently. In comparison, 315 articles published in JCP with the same analysis frame, multicultural counseling/diversity with clinical clients/patients are studied more than Korean studies. Based on these results, meaningful findings and implications on the academic direction of domestic counseling research is suggested.

Key words : research trend of Korea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Kore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ntents analysis